



六禮 문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형제에 대한 호칭은 어떤 게 적절한가

問 나는 3형제 가운데 셋째인데 자녀가 태어나자라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에게 있어 나의 형님들은 다 큰 아버지인데 이 큰아버지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냐요? 맨 큰 아버지를 큰아버지 또는 맏아버지라 하고, 다음은 둘째 큰 아버지 또는 작은 아버지라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과연 옳은가요? 그리고 가령 나에게 아우들이 있어 우리가 모두 6,7형제나 될 경우에 그 자녀들의 아버지들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窮問子

答 우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큰형을 큰아버지라 부르는데 이는 굳이 분류하면 구어체口語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어체文語體로 하면 대개 한자어여서 백부伯父가 된다 하겠습니까. 문어체는 백부로서 일정불변이라 하겠으나 구어체의 큰아버지는, 가령 영남의 어떤 지방에 가면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고 정작 큰아버지는 맏아버지라 해야 백부가 됩니다. 우리말의 옛 어휘는 많이 한자로 먼저 만들고 우리말로 이를 풀어서 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한자로 대부大父라 하니 이 대부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큰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의 ‘伯’이 ‘맏’ 백 차이니 이를 ‘맏아버지’라 함에 하자가 있다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할아버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할아버지는 한자어와 달리 순수한 우리말의 크다는 뜻 ‘한’이 앞에 접두되어 ‘한아버지’로 한자어보다 먼저 생긴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라남도 남쪽

지역에 가면 할아버지를 옛 그대로 한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큰아버지로 하는 것은 비록 관습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언어는 절대다수의 사람이 공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의 무작위적 약속일 테니까요.

백부를 큰아버지로 하든 맏아버지로 하든 이의가 없다면 다음 당신의 둘째형을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당신은 당신의 맏형을 큰형이라 부르고 다음을 둘째큰형이 아니라 그냥 둘째형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둘째형을 둘째아버지라 부르면 되니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고 굳이 둘째 큰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색하기도 하거니와 금기에도 저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한자로 4형제를 백중숙계伯仲叔季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백부의 백이 맏이의 고유불가침이라면 중숙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의 ‘큰’이라는 접두어는 맏이 외에는 붙여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에다 함부로 붙여 둘째 큰아버지니 셋째 큰아버지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아버지의 문어체는 중부仲父이고 중부의 중은 버금의 뜻입니다. 그리고 버금을 둘째로 풀어 둘째아버지는 중부, 둘째형은 중형仲兄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인 당신의 자리는 숙叔입니다. 이 숙은 아자비의 뜻과 함께 셋째와 그 이하를 나타냅니다. 숙은 또 우리말의 ‘작은’과 같습니다. 그래서 숙부라 하면 작은아버지이고 숙씨叔氏라 하면 나의 셋째형과 그 이하 작은형이 되는 것입니다.

다. 당신은 이러한 셋째인데 물론 당신의 자녀는 당신을 그냥 아버지요 부친 또는 대인大人 등으로 칭하지 셋째아버지나 숙부 등으로 칭할 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형의 자녀는 모두 당신을 숙부와 셋째아버지로 칭합니다.

당신의 아우가 있어 막내라면 그 자리는 계季입니다. 계에는 끝의 뜻이 있어 우리말로

막내, 말째와 같습니다. 천자문에서 이를 ‘말째 계 차라’ 했으니 말입니다. 당신의 막내 아우에 대한 당신 이상의 형제 자녀들의 호칭은 계부季父이고 말째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아우가 만약 옛날 다자녀 시대처럼 두셋이라면 맨 끝의 아우만이 계이고 그 사이에 있는 아우들은 다 숙입니다. 백중계는 다 유일수인데 당신의 숙만이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어체 우리말로는 당신의 조카들이 당신으로부터 아우들까지를 셋째아버지, 넷째아버지, 다섯째아버지, 그리고 끝에 가서만 말째아버지라 합니다.

당신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은 문어체에서는 ‘부父’ 자리에 ‘모母’가 들어가고 구어체에서는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가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계에는 ‘아우’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씨季氏라 하면 상대의 막내아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우를 말하고 계수季嫂라 하면 당신의 모든 아우의 아내를 지칭하여 쓰게 됩니다. 요즘 너나없이 계수를 ‘제수’라 하는데 틀린 말이고 무식한 소리입니다. 제수는 제사지내는 용품 ‘제수祭需’에나 쓰는 용어입니다.—弼雲齋

9면에서 계속

건국민운동본부에서 주도하던 불우청소년 재건학교의 교사가 되어 고향 안성국민학교 교실을 빌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다소 늦은 나이로 1968년에 최초로 실시한 경기교육위의 행정직 공채 5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초임으로 안성군교육청 산하 안성중학교 서무과에 발령을 받았다. 이로부터 타고난 성실성과 업무처리 능력을 돋보이며 안성교육청에서 여러 보직을 맡다가 1979년에 그 어렵다던 논술의 3급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였다. 당시 나이는 이미 중년을 넘겼다 할 44세였다. 그 뒤 안성교육청에서 평택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옮겼는데 여기에서 방치되어 있던 관내의 부동산 등 재산을 발굴 관리하여 그 관재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으로 도교육감에게 발탁되어 경기도교육청으로 영전되고, 경기도교육청 재직 중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간의 교류가 있어 신설되는 체육부의 학교체육과로 옮겨가 학교 급식을 다루며 능력을 발휘했다. 체육부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정부 부처의 직제가 바뀜에 따라 문교부 산하 중앙교육평가원으로

옮기고, 다시 본청의 교육시설국, 대학정책실 등을 거쳐 국립 강릉대로 나가 서무과장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총무과장이 되었다.

정년퇴직 후 권혁래씨는 10수년 동안 문중과 위선사爲先事에 헌신하여 지금까지 존재조차 없던 집의공종회執義公宗會를 창립하고 그 총무로서 오래 온갖 어려운 일을 도맡아 오다가 이를 궤도에 올려 놓고 2년 전에 부회장직으로 물러나 이곳으로 은퇴해 들어왔다. 이러한 권혁래씨는 20대 초에 5년여 동안 재건국민운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당시로부터 평생을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그 부인과 함께 불심을 실생활에 실천하는 삶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농막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대담을 하고 있는데 왕벌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다. 모두가 놀라 살충제가 없나 눈을 두리번거리거나 파리채 따위로 후려치고자 찾았으나 컨테이너 안에는 살충제도 파리채도 없었다. 권혁래씨는 전등을 꺼 어두우면 밝은 곳을 찾아 나간다면 불을 끄라 하였다. 과연 문열의 전기 스위치를 내려 실내가 어두워지자 왕벌은 금시에 밖으로 나가 사라졌다. 이 산속에 는 갖가지 미생물 해충이 많

다. 그런 해충에 시달리면서도 이들 내외는 손을 내저어 쫓기는 할망정 결코 살충제를 살포하지 않는다. 특히 그 부인이 살생을 싫어해서라 하였다. 요즘은 산채에도 농약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 대원농장에서는 농약을 치는 것도 살생이기 때문에 금물이다. 서울의 경동시장에서 이곳과 특약을 맺고 있는 야채상이, 과연 이 사람이 농약이나 비료 따위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산채를 생산하고 있는지 믿기지가 않아 직접 찾아온 일이 있었다. 실상을 보고 난 그 상인이 이곳 수확물은 전량을 자기에게만 공급해 달라고 당부하고 돌아갔다. 그 양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독점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곳의 삶을 더욱 선호하는 것은 그 부인 정오현씨였다. 부인은 노인성 성인병이라 할 고혈압과 요통·수전증 등에 시달려 서울살이에서 영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 자고 깨면 산채밭 산비탈에 엮드려 고된 일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데도 아픈 고질이 하나씩 사라져 이제는 오래 복용하던 고혈압 약도 끊게 되었다 하였다.

<사진 권炳逸 · 글 권五焄>

자동차 · 화재 · 건강 등 어떤 보험이든 하나만 들으시면
安東權氏宗報 陵洞春秋 구독회비는 무료가 됩니다!

국내 모든 보험회사의 온갖 상품을
일가분의 선호에 맞춰 완벽히 설계해 드립니다!

안동권씨중보사 종합보험 대리점

대표 권병일

서울종로구필운동285-5 파크뷰타워 807호 02)723-4480(전송 02)738-8935011-289-1747

우리는라이프사이클변화에따른체계적보상과자유로운선택의맞춤설계형보험으로일가고객모든분께만족을드립니다!
실속있는맞춤선택에서충분한보상까지어떤보험상품이각자에게필요할까,
섬세한컨설팅을통해고객별로최적의맞춤형보험을만들어드립니다!